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수역량 서비스와 행정서비스가 대학-유학생 관계성과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PR의 관점을 중심으로

최명일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The Effects of Professor Competency Services and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s on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s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University PR

Myung-Il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Namseoul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공중으로 보고, 대학-유학생 관계성의 선행변인(교수역량 서비스, 행정서비스), 결과변인(대학생활 적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수역량 서비스와 행정서비스 모두 대학-유학생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학생 관계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PR의 관점에서 대학-유학생 관계성을 주요한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메시지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교수역량 서비스, 행정서비스, 외국인 유학생, 대학-유학생 관계성, 대학생활 적응, 대학 PR

Abstract This study viewed foreign students as a publics that requires active communication, and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 variables (professor competency service,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 and outcome variables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of the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s. As a result, both the professor competency service and the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s. Also, the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need to set the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 as a major performance indicator and use it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a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messages.

Key Words : Professor competence service, University administration service,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UFSR), Foreign student adaptation to universities, University PR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year 2021.

*Corresponding Author : Myung-Il Choi(jhmi0410@empas.com)

Received July 19, 2021

Revised August 19,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1. 서론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19학번 신입생부터는 학생보다 대학정원이 더 많고, 2024년에는 12만 4,000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교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60%대로 떨어지면서 대학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1]. 또한, 10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됨에 따라 국내 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대학이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부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해외 유학생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학사제도로 전면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부족한 학생을 충원하기 위하여 해외 유학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유학생은 2010년 83,842명에서 2019년 약 2배가량 증가한 160,165명이다. 2023년에서 2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PR의 관점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중으로 부상하였으며,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사이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관계형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 우울증 등을 겪을 수 있다[2]. 자퇴, 휴학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서비스 품질의 관점에서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3,4]. 대학PR 관점에서의 대학-유학생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일하게 이형민(2015)의 연구에서 대학-유학생 관계성이 대학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신뢰(trust), 헌신(commitment), 만족(satisfaction), 공존적 관계(communal relationship) 등이 소속 대학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대학PR 관점에서 대학-유학생 관계성 연구의 필요성은 조직-공중 관계성(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OPR) 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대학PR 관점에서 대학-유학생 관계성 연구의 필요성은 조직-공중 관계성(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OPR) 이론을 이

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조직 PR의 목적은 공중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직-공중 관계성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일 뿐만 아니라, 효과 측정을 위한 핵심 지표이다. 그런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에서는 적절한 조직-공중관계성 형성은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7], 자발적인 지지 행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8].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을 독립적인 조직체로 간주하고, 대학-학생 관계성이 대학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대학-학생 관계성이 높을수록 대학만족도[9], 학업성취도[10], 대학태도[11]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크게 2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대학-학생관계성 형성을 위한 선행변인과 이로 인한 결과변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이다. 최명일(2020)의 연구에서는 대학-학생관계성 형성을 위한 선행변인으로 교수의 수업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설정하고, 결과변인으로 대학태도를 설정하였다. 국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1]. 이형민(2015)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대학-학생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학생 관계성 형성의 선행변인과 이로 인한 결과변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크게 교수서비스, 행정서비스, 물리적 교육환경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12,13], 긍정적인 대학만족도, 대학태도 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교수서비스는 교수내용, 교수방법 등과 같은 교수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행정서비스는 대학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물리적 교육환경은 교육 공간, 각종 편의 시설 등을 말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대학과 직, 간접적인 접촉을 느낌으로써 공중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은 교수역량 서비스와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수역량 서비스와 행정서비스가 대학-유학생 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보

고자 한다. 한편, 대학PR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을 주요한 결과변인으로 다루고 있다[4,14,15]. 대학-유학생 관계성 형성을 통해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휴학, 자퇴 등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유학생 관계성의 결과변수로서 대학생활 적응을 설정하였다. 이 상과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총 3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1: 대학의 교수역량 서비스는 대학-유학생 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대학의 행정 서비스는 대학-유학생 관계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 대학-유학생 관계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에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1개월간 충청남도 소재 대학교의 2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이 대학-유학생 관계성 형성의 선행변인과 이로 인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 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1학년 학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유학생들은 한국어학당 수업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응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총 200부를 수집하였으며, 일부 문항의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6명의 응답결과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64명(36.4%), 여성 112명(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20세~34세까지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22.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 113명(64.2%), 3학년 44명(25%), 4학년 19명(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측정된 구성개념(교수역량 서비스, 대학

행정 서비스, 대학-유학생 관계성, 대학생활 적응)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2.2.1 교수역량 서비스

교수역량 서비스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총 4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3].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 교수님은 수준 높은 강의 내용을 제공한다’, ‘우리 대학 교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대학 교수는 내가 각종 정보를 얻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 ‘우리 대학 교수님은 내가 최신 지식을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등이다.

2.2.2 대학행정 서비스

대학행정 서비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 5문항을 이용하였다[13].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우리 대학은 다양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재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수업 이외의 다양한 사회,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반영 및 처리한다’ 등이다.

2.2.3 대학-유학생 관계성

대학-유학생 관계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개 차원(상호통제, 헌신, 만족, 신뢰)으로 구분하여 총 11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0,11]. 상호통제는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우리 대학과 나는 서로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우리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과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됨을 느낀다’ 등이다. 헌신은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는 우리 대학의 일이라면 최대한 협조하고 지지할 것이다’, ‘우리 대학은 나와 장기적으로 헌신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우리 대학과 오랫동안 유대적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등이다. 만족은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는 우리 대학과의 상호작용에 만족한다’, ‘나는 우리 대학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체로 만족한다’ 등이다. 신뢰는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우리 대학은 약속한 것을 지킨다’, ‘우리 대학은 나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해준다’, ‘우리 대학은 건전한

원칙으로 학교를 이끌고 있다’ 등이다.

대학-유학생 관계성은 연구결과의 간명성 확보를 위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second 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chi^2_{(38)} = 188.89, p < .01, SRMR = .04, CFI = .95, NNFI = .93$). 일반적으로 CFI, NNFI 등은 .90이상, SRMR은 .10 이상인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유학생 관계성을 구성하는 4개 차원별(상호통제, 헌신, 만족, 신뢰)로 하위 측정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2.2.4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3개의 측정문항을 이용하였다[4].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우리 대학에서 하는 수업, 행사 등이 즐겁다’, ‘나에게 대학생활은 좋은 추억이다’, ‘나는 우리 대학에서 하는 수업, 행사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등이다.

3. 분석결과

3.1 측정모형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교수역량 서비스, 행정서비스, 대학-유학생 관계성, 대학생활 적응)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LISREL 8.53을 이용하였으며, 모수추정은 ML(Maximum-likelihood estimates) 방식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요구되는 기본가정이 라고 할 수 있는 정규성,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적합도 값은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chi^2_{(129)} = 379.50, p < .01, CFI = .96, NNFI = .97, SRMR = .06$).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s validity)는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통해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는 구성개념별로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이 유의미한 경우를 말한다[17].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측정항목의 요인적재값은 .65~.99의 범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따라서, 수렴타당도는 확인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판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 구성개념 사이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큰 경우에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18].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모든 구성개념 사이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1. Result of measurement model

Construct	Measurement Items	Mean	S.D	Factor loading ¹⁾	t-value	Composite Reliability
Professor Competence Service	1-1	4.13	0.77	0.75		.946
	1-2	4.15	0.73	0.80	11.04	
	1-3	4.01	0.82	0.82	11.32	
	1-4	4.12	0.79	0.81	11.22	
	1-5	4.07	0.84	0.91	12.85	
	1-6	4.06	0.86	0.75	10.29	
University Administration Service	2-1	3.88	0.84	0.75		.939
	2-2	3.66	0.99	0.88	12.16	
	2-3	3.59	0.94	0.86	11.94	
	2-4	3.84	0.82	0.80	10.89	
	2-5	3.71	0.88	0.79	10.85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s ²⁾	3-1	4.04	0.65	0.87		.954
	3-2	3.68	0.87	0.82	14.02	
	3-3	3.79	0.73	0.89	16.54	
Foreign Student Adaptation to Universities	3-4	3.84	0.77	0.89	16.47	.894
	4-1	3.87	0.82	0.76		
	4-2	3.90	0.83	0.84	11.02	
	4-3	3.81	0.85	0.80	10.57	

1. Standard coefficient; 2. Summed average of measurement items by 4 dimensions (mutual control, commitment, satisfaction, trust); 3 Model fit index: $\chi^2_{(129)} = 379.50, p < .01, CFI = .96, NNFI = .97, SRMR = .06$

Table 2.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	AVE	The squared correlation between construct			
		①	②	③	④
Professor Competence Service(①)	.747	1			
University Administration Service(②)	.757	0.25	1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s(③)	.839	0.46	0.58	1	
Foreign Student Adaptation to Universities(④)	.738	0.28	0.50	0.64	1

3.2 연구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chi^2_{(131)} = 378.05$, $p < .01$, CFI = .96, NNFI = .96, SRMR = .06).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 값을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대학-유학생 관계성 변동량의 71%, 대학생활 적응 변동량의 66%를 각각 설명하였다.

3.3 가설검정 결과

가설 1에서는 교수역량 서비스가 높을수록 대학-유학생 관계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gamma = .39$, $t = 5.95$, $p < .01$, 단측검정),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2에서는 대학행정 서비스가 좋을수록 대학-유학생 관계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gamma = .58$, $t = 7.85$, $p < .01$, 단측검정).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가설 3에서는 대학-유학생 관계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81$, $t = 9.81$, $p < .01$, 단측검정).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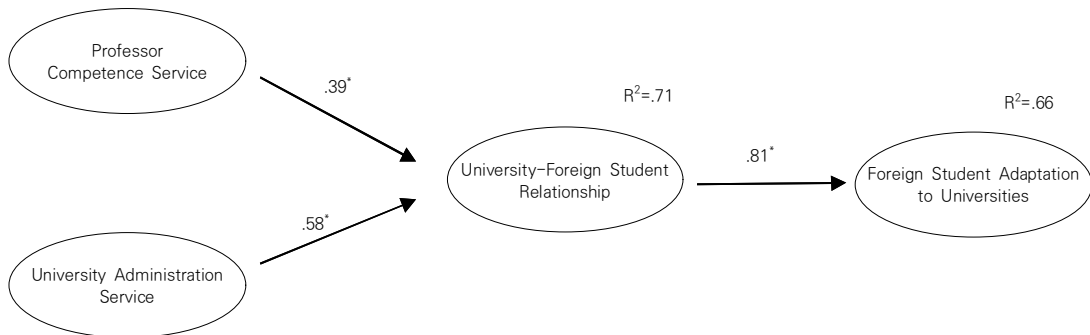


Fig 1. Result of research model

- $\chi^2(86) = 378.05$, $p < .01$, CFI = .96, NNFI = .96, SRMR = .06
- * $p < .01$.
- The coefficients for all paths are standardized values

4. 결론 및 논의

이 논문은 각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 문화 등의 문제로 인해 소속감, 만족도 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교육품질에 따른 학생만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대학PR의 관점에서 대학-유학생 관계성의 선행변인(교수역량 서비스, 대학행정 서비스)과 결과변인(대학생활 적응)을 분석하였다.

먼저 교수역량 서비스는 대학-유학생 관계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

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11]. 대학의 본질은 우수한 교수에 의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있으며, 이것이 대학-유학생 관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유학생 관계성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평가 문항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유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대학의 행정서비스는 대학-유학생 관계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들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성과지표는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대개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 성과지표로서 대학-유학생 관계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유학생 관계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PR의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의 장기적,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 문화 등의 문제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대학만족도, 소속감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유학생 관계성(상호통제, 헌신, 만족, 신뢰)은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메시지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설문조사방법의 한계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 설문조사를 얼마나 성실히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수집된 설문지에서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코로나 19 이후에 대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대상의 한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20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여학생과 2학년 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성별, 학년별 비례할당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연구모형의 한계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설문문항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 4개의 구성개념만을 이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대학-유학생 관계성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을 포함함으로써 대학PR의 관점에서 보다 의미있는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2019). *Basic Education Statistics for 2019*. Seoul.
- [2] E. Park., B. Huang & T. Jung. (2010). Adjustment of international undergraduates from China to academic life in South Korea.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8(2), 205-223.
- [3] E. E. Choi, M. S. Kim & S. K. Hong. (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ervice quality of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s satisfaction and loyalty.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19(5), 269-294. DOI : 10.15706/jksms.2018.19.5.013
- [4] J. W. Kim & E. J. Kim. (2019). A study of Chinese student adaptation to Korean universities and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4(4), 99-112. DOI : 10.9723/jksis.2019.24.4.099
- [5] H. M. Lee. (2015). Understanding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 from a public diplomacy perspectiv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9(4), 1-26. DOI : 10.15814/jpr.2015.19.4.1
- [6] S. D. Bruning & J. A. Ledingham. (1999).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and publics: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and evaluations of satisfaction. *Public Relations Review*, 26(1), 157-190.
- [7] E. J. Ki & L. C. Hon. (2007). Testing the linkages among the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and attitude and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9(1), 1-24.
- [8] M. Sung & S. U. Yang. (2009). Student-university relationships and reputation: A study of the links between key factors fostering students' supportive behavioral intentions towards their university. *Higher Education*, 57(6), 787-811
- [9] N. I. Park, J. Y. Jeong & B. S. Jin. (2017). University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 and university student satisfac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21(6), 131-151.
DOI : 10.15814/jpr.2017.21.6.131

- [10] S. W. Yoo & H. Y. Park. (2018). University public rel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2(5), 329-363.
DOI : 10.20879/kjcs.2018.62.5.010
- [11] M. I. Choi. (2020). A Study on the University PR in the New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ffects of Professor's teaching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University-Student Relationship(USR) and university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9), 117-126.
DOI : 10.15207/JKCS.2020.11.9.117.
- [12] K. H. Jung & Y. S. Kim.(2018). A Study on the Chinese Students' Experience of Korean University Education Services: Focused on the Case of A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3), 547-565.
DOI : 10.24159/joec.2018.24.3.547
- [13] H. H. Jeong.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structional service, non-instructional service, and physical education environment on loyalty through perceived quality, cognitive and emotional satisfaction in university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1), 225-253.
DOI : 10.24159/joec.2019.25.1.225
- [14] M. H. Hou & Y. H. Kim. (2018).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majors and major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es of choosing major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Tourism Research*, 43(1), 275-299.
- [15] K. S. Lee, S. Y. Bai & C. H. Lee. (2018). The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acculturation stres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5), 231-264.
DOI : 10.21509/KJYS.2018.05.25.5.231
- [16] J. Hair, W. Black, B. Babin, R. Anderson & R. Tatham.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17] R. P. Bagozzi & Y. J. Yi.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18] C. Fornell & 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최 명 일(Myung-II Choi)

[정회원]



- 2007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대학PR, 공공캠페인, 헬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효과
- E-Mail : jhmi0410@empas.com